

“이웃 위할 수 있음이 살아가는 樂이죠”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30일 아주 특별한 ‘앨범’ 하나씩을 만들었다. ‘새해맞이 해돋이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라며 세상이 온통 들떠 있을 때였다. 이들 17명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자리한 통일안국사(주지 지산) 부설 선재동자원을 찾아 새해 맞을 준비를 했다. 선재동자원은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이 74명이 모여 사는 비인가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지낼 새 건물이라도 생겨서 다 행이예요. 작년에 올 때는 조립식 가건물 4동밖에 없었는데, 아예 몰랐더라면 싶었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주지 지산 스님의 안내로 20여 일 전 새로 입주한 3층짜리 콘크리트 속속 건물을 둘러보며 일행이 동시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 20일 됐나. 아직 안에는 손 불 때가 많은데 날씨 추워서 먼저 옮겨야.” 지산 스님은 은빛 빛 내서 건물 먼저 지었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은 놓인다”는 일행의 말에 스님은 “은행 이자며 운영비며 후원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후원금도 갈수록 줄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자, 이제 일해야죠.” 속소를 둘러보자마자 이상근 총무부장(중앙신도회)이 서두른다. “작년에는 거의 놀다갔거든요. 애들이랑 공짜로 보나...”

이날은 마침 아이들이 머리 깎는 날이었다. 여자 아이들 속소였다 지금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에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하매씨가 쉬는 날을 택해 딸과 함께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라도 감겨줘야지” 하는 일행들의 바람(?)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역시 자원봉사로 나온 학생들이 이미 선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호떡과 초코파이 등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박태훈(중앙신도회 정보화사업팀)씨는 “1년에 한 번 왔다가는 거라

■ 조계종 중앙신도회·불교환경연대의 특별한 새해맞이



◇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 통일안국사 선재동자원을 찾은 조계종 중앙신도회·불교환경연대 사무처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하며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 다짐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다.

3년째 아동복지시설서 송년회 대신 봉사로 한해 마무리 1년에 한번이라 늘 미안... 보다 많은 사람들 관심갖길

솔직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래도 한 번 오고 나면 생각이 많이 나오. 텔레비전에 비슷한 처지의 애들 얘기가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작게나마 성금도 내게 되거든요. 봉사를 자주 다니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 주게 되고요.”

이상근 부장은 “송년회 대신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봉사 활동 한 게 올해로 3년째거든요. 첫째엔 동지소년의 집에 갔었고 작년부터 여기 왔는데, 아이들 얼굴을 보고 나면 다짐이 많이 됩니다. 1년을 뒤 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고 새해엔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되고...”라고 말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오줌 마려워요”라고 말하자 이 부장은 “가지”라며 얼른 자리를 떴다.

새 속소로 발길을 옮기자 정소하는 일행들 틈 속에서 김희경(불교환경연대 자원봉사자)씨가 네 살배기 지훈이랑 한장 장난을 치고 있다. “처음 여기 올 때는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녀석 생각이 많이 나요.” 어느 새 즐기고 있는 지

훈이를 품에 안은 김 씨는 “작년에 올 때는 6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며 “이제 연말연시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할 만큼 해봤잖아요. 말로만 이웃을 생각하자고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애 국장(불교환경연대)은 “한 달에 한번씩들 오자고 했는데, 큰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며 “어쩌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렇게 잠깐, 한 번 다녀가고 나서는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자만심을 가지는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인사처리는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간다”며 “4개월 된 어린 아이까지 내 자식인양 책임지려는 지산 스님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글=권형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통일안국사 부설 선재동자원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비인가 아동복지시설. 90년 3월, 통일안국사 주지 지산 스님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 했다. 생후 4개월된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74명이 살고 있다. 박현규 사무장은 “올해만 10명 정도 새로 들어왔다”며 “경기가 안 좋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지만 여기 있는 9년 동안 부모가 와서 다시 데려가는 경우는 3명 밖에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 빛을 쬐어다 3층 건물을 먼저 지은 건, 지난해 여름 화재로 가건물 4동 중 2동이 전소돼 아이들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부 인가(2005년 7월)까지 받아야 함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비인가 시설이라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후원금만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처지에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 인력 등을 맞추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캄캄하기만 하다. 지산 스님은 “인 가시설에는 18세가 넘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떠나면 또 어디로 가겠느냐”며 “제 인생 책임져서 나갈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031)855-2235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가기 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가기수의의 특징

- 가기수의의 특성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도, 소매업소가 아닌, 수의를 만드는 수의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수의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주문된 수의를 제작합니다.
-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은 후에 수의를 제작합니다.
- 주요한 수의의 제작과정을 직접으로서 보고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 수의의 특이점(차수, 삼베의종류, 부분제작 등)을 미리 주문해 주시면 아래제품에 없는 수의라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 제품에 사용하는 실은 100% 면사만을 사용합니다.
- 수도권은 24시간 내에 제작,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송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려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潤年壽衣)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품명	구성	재질	가격
특 1호 대마수의	남 21종, 여 20종	중국 기계직	550,000원
중 1호 인동포(중국)	남 21종, 여 20종	중국 수제작	1,700,000원
정 1호 인동포(국산)	남 21종, 여 20종	인동 수제작	4,200,000원

* 멧베는 별도입니다.